



김국영, 끝나지 않은 도전

9초대 뛰겠다

한국 육상 간판 김국영(맨 오른쪽)이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 경기에서 캐나다의 개빈 스멜리(맨 왼쪽), 미국의 저스틴 게틀린과 역주를 펼치고 있다. 김국영은 10초24로 조 3위를 기록하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세계육상선수권 100m 10초24로 사상 첫 준결승 진출

‘출발 반응’ 세계 최고...가속도·보폭 확대 등 약점 보완 중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이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새 역사를 썼다. 대회 시작 전, 김국영은 “준결승에 진출하겠다”고 했다. 냉소적인 시선과 기대가 교차했다. 김국영은 지난 5일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100m 예선 5조에서 10초24로 3위를 차지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세계육상선수권 단거리에서 한국 선수가 준결승에 오른 건, 김국영이 최초다. 6일 준결승 무대에 선 김국영은 10초40으로 아쉽게 레이스를 마쳤다. 김국영은 “기대하신 팬들께 기

쁨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국영 덕에 한국 육상팬들도 ‘세계육상선수권 100m 준결승에서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최초의 경험을 했다. 한국 육상에서 남자 100m가 주목받았을 때, 주인공은 늘 김국영이었다. 김국영은 19살 때부터 육상 단거리 불모지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살아왔다. 김국영은 2010년 10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로 서

말구가 1979년 세운 한국기록 10초34를 31년 만에 바꿔냈다. 그리고 준결승에서 10초23을 기록하며 포효했다. 새로운 한국기록이었다. 김국영의 등장으로 한국 육상 단거리는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김국영은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초16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올해 6월 27일 강원도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전에서는 10초0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개인 네 번째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아쉬운 순간도 있었다. 2011년 대구 세계선수권에서는 부정 출발로 실격했고, 2015년 베이징 세계선수권에서는 10초48,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10초37로 예선 탈락했다. 그러나 김국영은 실패도

성장의 지양분으로 삼았고, 생애 3번째 세계선수권에서 마침내 준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김국영은 예선에서 0.107초의 놀라운 출발반응을 기록했다. 전체 1위의 출발반응이었다. 준결승에서도 출발반응 0.115로 전체 1위에 올랐다. ‘출발’만큼은 세계 최정상급이란 걸 확인했다. 관건은 가속과 속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김국영은 400m 훈련을 꾸준히 하고, 보폭을 넓히는 등 약점을 보완하고자 노력 중이다. 보폭을 넓힌 새로운 주법에 익숙해지면 한국 육상의 역사는 또 바뀔 수 있다. 김국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9초대에 진입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제 그의 목표에 귀 기울이는 팬들이 늘었다. /연합뉴스

아쉽지만 희망 보였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보였다. 우리 국영이 지켜봐달라.”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은 6일 새벽 런던에서 걸려온 김국영의 결승 좌절 소식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심감독은 이어 “나보다는 국영이가 더 실망스러울테니 육상팬들이나 광주시민들이 응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힘들어 할 애제자를 감쌌다. 김국영은 6일(현지시간) 오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10초40으로 8명 중 최하위에 그쳤다. 한국 육상 단거리 선수 중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준결승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결승전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날 조 1위는 10초05의 아카니 심바인(남아프리카공화국), 2위는 10초09로 레이스를 마친 저스틴 게틀린(미국)이었다. 김국영의 개인 최고 기록은 10초07이다. 개인 기록과 비교한다면 결승전에도 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더 아쉬웠다. 이날 김국영은 출발 반응 속도 0.115초로 가장 빨리 스타트 블록을 차고 나갔다. 50m 지점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했다. 하지만 나머지 50m에서 평소보다 느렸다. 김국영은 “한국 남자 최초로 100m 9초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안고 전진해왔다. 때론 부진했지만, 그는 늘 앞을 향해 나아갔다.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10초2대, 10초1대를 뛰더니, 10초07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한국에서도 9초대 기록이 나올까”라는 희망을 안겼다. 그리고 세계선수권 준결승 진출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냈다. 26세의 김국영. 그에게 런던대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다시 한국신기록에 도전하겠다. 내년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 주관 대회 등에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며 배우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

환호 받은 3등... ‘번개’ 볼트 질주 멈추다

세계육상선수권 남 100m 결승 ‘만년 2위’ 저스틴 게틀린 우승 ‘은퇴무대’ 볼트 3위 그쳐

많은 팬이 ‘황제’ 우사인 볼트(31·자메이카)의 화려한 마지막 대관식을 기대했다. 하지만 ‘만년 2위’ 저스틴 게틀린(35·미국)이 왕관을 썼다. ‘팬심’은 게틀린에게 가혹했다. 런던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팬들은 게틀린에게 야유를 보냈다. 동시에 ‘우사인 볼트’를 연호했다. 게틀린은 6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92로 정상에 올랐다. 2005년 헬싱키 대회 이후 12년 만에 따낸 금메달이다. 볼트는 9초95로 3위에 그쳤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대회부터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 메이저대회 결승전에서는 늘 1위에 올랐던 볼트가 게틀린에 밀린 건, 이번이었다. 런던 스타디움의 팬들은 이번을 충격으로 받아들였고, 게틀린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우승 세리머니를 하던 게틀린도 화를 내는 듯한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맞섰다. 볼트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게틀린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며 축하 인사했다. 게틀린은 볼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세리머니로 ‘황제’ 볼트를 예우했다. 두 선수 사이의 인사는 이렇게 다졌다. 팬들은 달랐다. 팬들은 우승자 게틀린이 아닌, 볼트의 이름을 연호했다. 볼트는 팬들을 향해서도 감사 인사를 했다. 게틀린은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볼트 대항마’로 사는 어려움을 고백한 적이 있다. 리우올림픽 남자 100m, 200m에 나설 때마다 야유를 받은 게틀린은 “볼트의 경쟁자는 프로레슬링을 하는 기분으로 산다. 모두가 볼트를 응원한다”



“볼트, 존경합니다”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런던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 결승에서 우승한 저스틴 게틀린(미국·왼쪽)이 3위를 기록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의 축하에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만년 2위’ 게틀린은 이날 ‘황제’ 볼트를 따돌리고 9초92로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며 “볼트를 응원하는 사람에게는 야유를 보낼 적이 필요하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최고 스타 볼트가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고, 게틀린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던 터라 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볼트가 ‘은퇴 무대’로 공언한 런던에서는 게틀린을 향한 야유가 더 커졌다. 런던은 볼트가 자주 머무는 곳이자 ‘제2의 고향’으로 부르는 도시라 런던에서의 팬심은 더 두껍다. 볼트가 팬들의 바람과 달리 100m 우승에 실패하자, 그 아쉬움이 게틀린을

향했다. 게틀린에게 이번 우승은 특별했다. 그는 2013년 모스크바·2015년 베이징 세계선수권, 2016년 리우 올림픽 100m에서 2위를 했다. 3개 대회 금메달리스트는 볼트였다. 런던 세계선수권은 게틀린에게 볼트를 넘을 마지막 기회였다. 숙원을 풀었지만, 축하보다 야유를 먼저 받았다. ‘우승자’ 게틀린의 표정에 환희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연합뉴스

버나디나, 新나자나

타이거즈 외국인 첫 사이클링 히트·20-20 가입

타이거즈 역사에 새 기록을 써가는 ‘샤크’ 버나디나. ‘돌타자’를 기대하며 영입했던 KIA 타이거즈 외야수 버나디나의 사연 많은 2017시즌이다. 스프링캠프에서 버나디나는 올 시즌 조커로 예상됐다. 무섭게 공을 날려채며 ‘샤크’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버리고에서도 통한 수비 실력, 한방 있는 스윙에 성실함도 돋보였다. 부족한 것은 앞서서 채우는 버나디나는 ‘자아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자율 훈련에도 참여해 어린 선수들과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버나디나의 봄은 잔인했다. 핫스윙하고 벤치로 돌아가느라 바쁘면서 특유의 파워와 스피드를 발휘하지 못했다. 팀의 1위 행보와 결돈 버나디나의 성적에 관계자들의 애도 됐다. ‘퇴출론’까지 나올 정도로 버나디나에 대한 시선은 곧지 못했지만 김기태 감독은 믿음으로 인내 했다. 봄이 지난 뒤 무서운 타력으로 3번 타자로 중심을 잡고 있는 그는 타이거즈 역사에도 새 발자취를 남겼다. 지난 3일 kt와의 홈경기, 1회부터 심상치 않았다. 버나디나가 1사 3루에서 1루수 옆을 빠지는 타구로 2루를 뛰어 3루까지 내달렸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더 무서운 스피드를 과시했다. 좌중간으로 공을 보낸 버나디나가 예상을 깨고 2루까지 향했다. kt의 요청에 비디오 판독까지 이뤄졌지만 허를 찌르는 2루타가 기록됐다. 세 번째 타석에서 단타를 더해 사이클링 히트에 한 발 더 다가간 버나디나는 6회 네 번째 타석에서 어렵게 몸에 맞는 볼로 걸려갔다. 그리고 8회 선두타자로 5번째 타석에 섰고,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사이클링 히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홈런을 터뜨렸다. kt 조무근의 초구 볼을 지켜본 버나디나는 143km짜리 한 가운데 직구를 공략했다. 맞는 순간 홈

런이었던 타구에 버나디나가 ‘헬멧 세리머니’를 하며 그라운드를 돌았고, 홈을 밟는 순간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역사상 첫 사이클링 히트가 기록됐다. 전체 타이거즈 기록으로 따져도 지난해 김주찬에 이어 두 번째. 올 시즌 KBO리그 세 번째, 역대 24번째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 된 버나디나는 마르티네스(삼성·2001년), 테임즈(NC·2015년)에 이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한 3번째 외국인 선수로도 이름을 남겼다. 앞서 몇 차례 도전이 실패로 끝났던 버나디나는 “타자로서는 영광스러운 기록이다. 하고 싶었던 걸 이뤄서 기쁘다. 기록을 의식하지 않고 타석에 집중하려고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의 기록 행진은 4일에도 이어졌다.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던 20(홈런)-20(도루)를 채운 것이다. 한화와의 원정경기가 열린 4일, 0-5로 뒤진 6회 무사 1루에서 비야누에바의 공을 공략해 시즌 20호 홈런을 만들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21개의 도루를 기록했던 버나디나는 이 홈런으로 ‘20-20’클럽에 가입했다. 타이거즈 외국인 선수 최초이자 2003년 이종범(20홈런 50도루) 이후 14년 만이다. 팀의 패배로 ‘20-20’의 빛이 바랬지만 5일에는 승리를 이끄는 한 방을 날렸다. 1-1로 맞선 3회, 버나디나는 솔로포로 4경기 연속 홈런이자 7-1 승리의 결승타를 장식했다. 맹활약에도 버나디나는 항상 “내 존에 들어온 공을 쳤다. 칠 수 있는 공이 와서 쳤다”며 답답하다. 개인 기록보다 ‘우승’을 먼저 이야기하는 효자 외국인 선수이기도 하다. “우승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지금까지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우승을 이루고 싶다”는 버나디나가 꿈을 이루고 ‘V11’의 역사 한 페이지에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우기자 wool@